

강진군, 지역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중심 전환

연매출 30억 가맹점 사용 제한 5년째 연중 10% 상품권 할인 소상공인·소비자 선순환 경제 지역 골목상권 경제 보호 목표

강진군이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선순환 지역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재정비해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총 56개소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에 따라 개인이 10% 할인 적용을 받아 구매한 강진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하다.

반값강진관광 여행비,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의 경우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지류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착) 모두 해당된다.

강진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며 강진군에서는 5년째 연중 10%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는 행정안



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며 "강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영암군, 수도요금 감면 확대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영암군이 내년부터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수도 요금 감면 기준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영암군은 관련 조례 규정을 '25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가구'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로 개정해 수도요금 감면 가구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1200여 가구가 추가로 매월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받을 가구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영암=한교진 기자

목포해경, 바다 위 앰블런스 역할 상반기 응급환자 186명 이송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2024년 상반기 18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며 바다 위 앰블런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같은 기간 2023년 156명, 2022년 173명, 2021년 163명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과 대비해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목포해경이 이송한 응급환자는 1105명으로 월 평균 약 31명을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여름철 극성수기인 7~9월에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7~9월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333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 회춘탕 밀키트 홍보·판매 직거래 쇼핑몰서 온라인 구매 가능

강진군이 초복을 앞두고 최근 강진 대표음식인 회춘탕 밀키트 홍보에 나섰다.

초복은 더위에 따른 피로가 쌓이기 쉬운 시기이며, 올해는 더욱 뜨거운 여름으로 인해 이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식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강진 회춘탕 밀키트는 1인 용으로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진하게 우려낸 육수와 건더기(닭고기, 문어, 전복, 수삼, 대추), 녹두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진 회춘탕은 간 기능 회복과 당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엄나무를 비롯해 헛개나무, 느릅나무, 당귀, 가시오가피, 쑥, 뽕나무 등 11가지 한약재를 사용해 만든 육수에 사골추장과 국내산 문어, 전복이 들어가 기력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춘탕 밀키트는 강진군 작천면에 있는 '황금들 식육식당'에서 공급하며 이곳은 강진군 대표 먹거리인 회춘탕을 지난 2014년 인증받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지역의 맛집이다.

구매는 온라인 '초록민음강진 강진군 직거래 쇼핑몰(<https://greengi.com/>)'에서 가능하다. 강진=김윤복 기자



농협전남본부 직원들이 순천시 대대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전남본부,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달 30일 달로이트 안전회계법인(부회장 허식)과 함께 순천시 대대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협의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농협전남본부와 달로이트 안전회계법인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토마토 순

따기 등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은 개인, 기업, 기관 임직원 등 일반 국민과 농촌의 어려움을 돕는 여러 활동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농협의 대표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

허식 부회장은 "실제 농업현장에서 영

농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농협과 지속적인 농촌 봉사활동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탁 본부장은 "후일에 양 기관의 직원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남농협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장마와 무더위로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영농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보물 승격

역사·기술·예술적 가치 인정

무안군은 지난달 28일 몽탄면에 위치한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사진)이 국가지정유산 보물(2265호)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1614년(광해군 6) 제작된 높이 186cm에 이르는 대형불상으로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기백이 넘치는 조형상을 담고 있다.

반듯하고 종교적 감성이 잘 발현된 상호, 늘씬하고 장대한 신체 비례, 신체와 불의가 별개의 조각처럼 연출된 입체적인 조각 기법 등 17세기 조각 중 단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 중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아미타여래삼존상이라는 점,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여



래삼존상이 시대를 통틀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임진왜란 직후에 조성된 불상으로 조각승 유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단계 조각승의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충분

하다.

그동안 무안군은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보물 승격을 위해 2021년 학술 용역을 실시 2022년 2월 전남도에 지정을 요청, 2024년 5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으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지정유산 보물(2265호)로의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이 역사적·기술적·예술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보존을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안군 1호 보물 탄생의 계기로 우수한 문화유산이 무안에서 꾸준히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잔류농약 분석력 세계수준 입증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진도군농업기술센터가 2024년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에서 주관한 국제 비교 속도 시험 평가(FAPAS :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국제 비교 속도 시험 평가(FAPAS)는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민간 분석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분석 평가이다.

평가방법은 한달 참여기관에 동일한 시료를 제공하고, 제출한 결과값을 평가해 오차범위(Z-score) ±2.0 이내의 결과는 '만족'으로 정확한 분석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0.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우수함을 뜻한다.

이번 평가에서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 14가지 성분 모두 '만족'의 결과를 받았다.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등 3성분은 0.0, 말라티온(Malathion) 등 4성분은 0.1,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등 4성분은 0.2 등으로 14성분 모두 표준점수 0.17로 0.0(Z-score)에 가까운 완벽함을 인정받았다.

농산물안전분석실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과학영농팀(061-540-6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진도군의 우수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